고향으로의 회귀

요즈음 전 세계의 나라가 코로나19에 대응하는데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국민보건건강을 지키는 일과 생계를 지켜야 하는 일 사이에서 인도 정부 역시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매일 신규확진자수가 4천명에 다다르지만 봉쇄만을 고집할 수 없어 차차 봉쇄를 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수많은 이주 노동자들을 먼저 고향으로 보내는 일을 서두르기 시작했습니다.

::: 고향으로의 회귀 :::

인도의 경우 3월 25일부터 4월 14일까지 21일간의 첫 봉쇄를 시작했습니다. 1차 봉쇄 기간이 지났지만 4월 14일에 누적 확진자수가 10,453명으로 3월 29일 누적 확진자가 1,000명을 돌파한 뒤 16일 만에 10배로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봉쇄를 풀지 못하고 2차로 봉쇄를 5월 3일까지 19일간 연장하였습니다. (현재는 3차 봉쇄로 5월 17일까지 봉쇄가 연장된 상태입니다.)

봉쇄가 연장되자 일터와 거처를 잃고 고향에 돌아갈 날을 꼬박 기다려 왔던 이주노동자들은 그들의 기대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주 노동자들은 4천만명 이상이 넘는다고 합니다.) 봉쇄 기간이 길어지면 급여를 받지 못하고 돈이 바닥난 노동자들은 굶주림과 아사 상태에 몰리고 맙니다. 수많은 노동자들이 기차역에 몰려들어 고향에 보내 달라고 시위를 했습니다. “일을 하지 못해 집 임대료를 낼 돈이 없다” “음식도 충분히 먹지 못해 배가 고프다”며 항의했습니다. 절망에 빠진 이들은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 동안 40일간의 봉쇄가 지속되었습니다. 40일간의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주의 경계를 드나들 수 없고 도로와 철로가 봉쇄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돈이 떨어지고 먹을 것도 없는 노동자들 가운데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들이 계속 생겨났습니다.

12세 노동자의 귀향

◀ 12세 소녀 자말로

12세의 자말로 마드캄이라는 소녀는 처음으로 친척과 친구들과 집을 떠나 텔랑가나 주에 있는 고추 농장에서 일했습니다. 봉쇄가 연장되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두 달 동안의 일을 마치고 4월 16일에 일터를 떠나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 봉쇄 기간에 고향을 찾아 가는 이주노동자들

차티스가르 주에 있는 고향으로 가기 위해서 13명의 다른 사람들과 같이 100Km 거리를 3일 간 걸었습니다. 감시자들을 피해 숲길을 이용해야 했고 이동 중에 넘어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향 집에서 11Km 떨어진 지점에서 극심한 복통으로 더 이상 걸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의사의 말에 의하면 탈수현상과 영양 결핍이 심했다고 합니다. 4월 18일에 소녀는 전해질불균형과 탈진으로 사망했습니다.

어느 이주 노동자는 그가 일하던 델리에서 1,200Km 떨어져 있는 비하르 주의 고향을 향해 자전거를 타고 출발하였습니다. 그는 4일간 여행을 계속한 후 4월 30일 저녁에 우타르 프라데시 주의 샤자한푸르 지구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하루 밤이 지나 아침에 쓰러졌고 급히 병원으로 실려갔지만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부검결과 만성 폐병이 사인이었습니다.

고향을 향한 6일간의 긴 여정

◀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사용한 자전거들

6명의 이주 노동자들은 봉쇄로 인하여 4월 25일 새벽에 그들의 일터가 있는 구자라트 주의 수라트를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6일에 걸쳐 자전거를 타고 4월 30일 저녁에 935Km 거리까지 이동하였습니다. 아직 고향 집에 도달하려면 3일 동안 320Km의 거리를 더 달려야 했지만, 고향이 위치해 있는 우타르 프라데시 주에 도달했을 때 그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루 전인 4월 29일에 마디야 프라데시 주를 통과해야 했는데 검문소를 피해 깊은 숲 지대를 통과했습니다. 중간에 쉬는 시간을 가졌고 사원에서 음식을 얻어먹기도 했습니다.

주위에서 그들의 신원과 행선지를 묻기도 했고 어떻게 봉쇄 기간에 자전거를 구했는지 물어본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사람들을 피해야 했고 이들은 동행인이라는 의심을 피하려고 각자 500미터 이상 거리를 유지하면서 이동했습니다.

이들 노동자들은 다시는 일 때문에 구자라트 주로 돌아가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번 봉쇄로 인해서 가족과 함께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았습니다. 저의 가족은 작은 농장이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그곳에서 일할 생각입니다.”

이주 노동자들이 수백 킬로미터 또는 천 킬로미터나 되는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각자의 고향으로 찾아가고는 것을 보고 우리의 영원한 고향을 사모하는 마음에 대하여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회귀의 본능을 회복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진짜 고향을 찾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들은 더 나은 고향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늘에 있는 고향이었습니다.” (히11.14,16)

::: 긍휼의 손길이 닿는 곳 :::

◀ ㅁㅎ자와 구호품을 받은 디네시(오른쪽)

저희 N지역 순ㅂㅇㄱㅎ에 출석하는 디네시 형제 역시 일용 노동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봉쇄가 시작된 후로 일감이 없어 생계가 막막하게 되었습니다. 담당 ㅁㅎ자는 그에게 오토바이를 빌려 타고 와서 양식을 가져가라고 연락했습니다. 그는 돈도 양식도 전혀 없었고 오토바이를 빌릴 수 없어 14Km의 거리를 걸어서 와야 했습니다. 그는 아침 6:30에 출발하여 3시간이 넘어 오전 9:45에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그 형제가 걸어서 왔다는 말에 프라사드 ㅁㅎ자는 눈물을 감출 수 없었다고 합니다. ㅁㅎ자는 그에게 믿음을 지키라고 당부했습니다. 그 형제는 양식이 담긴 짐꾸러미를 어깨에 짊어지고 걸어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5Km 정도 걸은 후에 지쳐서 걷기 힘들다고 ㅈ님께 도와달라고 ㄱㄷ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사람이 나타나서 행선지를 묻고 그를 그의 마을까지 오토바이로 태워주었다고 합니다.

▲ ㅅ자들에게 전달할 구호품을 준비하고 있다

순ㅂㅇ ㄱㅎ에서는 15명의 식량이 다급하게 필요한 일용직 노동자들과 과부들을 대상으로 구호물자를 전달했습니다. 한 꾸러미에 2만원 정도 지출한 구호품과 채소구입비로 5천원 정도의 현금을 전달했습니다. 그들은 구호품을 받으면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ㅎㄷ교를 추종하다가 91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배급을 주는데 ㅅ자들은 제외시키고 있어 봉쇄 기간에 가난한 ㅅ자들은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봉쇄 기간 34일 동안 그들은 가지고 있는 돈을 모두 소진하였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15일간이 지난 후에 ㅅ자들의 상태에 대하여 점검하여 그들에게 생계를 위한 지원이 얼마나 필요한지 확인할 예정입니다. 구호품을 받은 15명 이외에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더 있지만 제한된 자금으로 인하여 그 이상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 생계가 어려운 ㅅ자들에게 구호품을 전달하다

궁핍한 불ㅅ자들을 향한 긍휼

▲ 구호활동을 나선 ㅅ자들

저희 에덴 ㄱㅎ에서는 ㄱㅎ에는 나오지 않는 불ㅅ자들이지만 의지할 곳이 없이 살아가는 취약계층을 위해서도 도움의 손길을 베풀었습니다. ㄱㅎ의 ㅈㄹ와 청년들이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었습니다. 6개의 구호품 상자를 준비하여 불쌍한 이들을 찾아가서 사랑의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선물을 받은 이들이 1님의 사랑에 믿음으로 반응할 날을 기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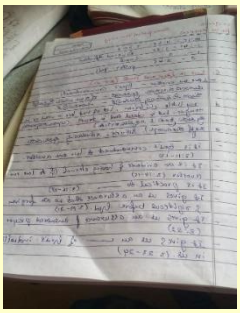
이번에 구호품을 받은 걸인은 3년 전만에도 백만장자였습니다. 그가 소유한 부지를 팔아서 거금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돈을 술과 사치로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자녀들마저 그를 떠났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 그는 공립학교의 통로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가 참된 부를 주시는 생명의 ㅈ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 줌(Zoom)을 통한 금식ㄱㄷ :::

봉쇄 기간 동안 집회가 금지되어 온라인을 이용하여 ㅅ자들이 금식ㄱㄷ에 동참하고 이것을 함께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 봉쇄 기간의 ㅁㅎ자의 일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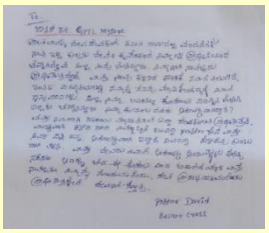
저희 ㅁㅎ자들은 공식적인 모임을 가질 수 없기에 전화나 온라인을 통하여 ㅅ자들을 돕고 있습니다. 어느 ㅁㅎ자는 봉쇄 기간에도 ㅅ자들을 위하여 간결한 설ㄱ 메시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봉쇄의 시간을 지내는 ㅅ자들이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사랑과 진리를 실천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ㅁㅎ자가 기록한 훈련원의 강의노트

사라바나 라는 ㅁㅎ자는 ㅁㅎ자훈련원에서 배운 것들을 복습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메시지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은 ㅁㅎ자들을 집회장소에 모아 가르칠 수 없지만 강의 내용을 준비하여 온라인을 통하여 전달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다음 강의를 틈틈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 가난한 ㅁㅎ자들을 위한 지원 :::



◀긴급지원금에 대한 ㅁㅎ자들의 감사편지

저희 ㅁㅎ자들은 몇몇 후원처와 더불어 ㄱㅎ로부터 공급되는 ㅎ금에 의존하여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도에서 3월 22일부터 집회가 금지된 이후 ㅁㅎ자들은 ㅎ금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30여명의 ㅁㅎ자들을 대상으로 문의하고 상담한 결과 가운데 14명의 ㅁㅎ자들이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4월에 재난긴급생활비를 이들의 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생계가 어려운 ㅁㅎ자들의 가정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ㄱㄷ제목 :::

* 봉쇄 기간 동안 ㅁㅎ자들과 ㅅ자들이 믿음을 지키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 이들의 필요가 계속 공급되도록
* 위기의 때에 가난과 시련에 직면한 불ㅅ자들이 1님께 돌아오도록

저희 4역을 위한 ㄱㄷ와 지원과 동역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ㅈ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곽요한.심은혜 드림 (2020년 05월 13일)